

"버닝썬 수사에 총력 쏟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조계종 예방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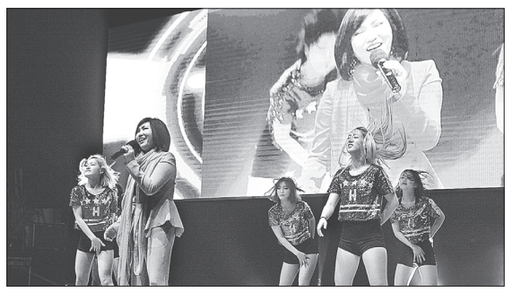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계종을 예방해 최근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 등 관련 경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민 청장은 "근래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많다"며 "전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그 걱정을 씻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공평하고 편안하게 나라 일을 이끌어달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 청장은 "스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일과 같이 국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야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 요구에 맞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직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인재양성이 일궈낸 음성포교

자비암예술단, 창립 4주년 콘서트

부산자비암문화예술단이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은 3월 16일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자비암문화예술단 콘서트'를 개최했다.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문화예술로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부산자비암문화예술단'을 창단, 현재 가수 30여 명이 동참 활동하고 있다. 소속 단원들은 가수협회에 등록된 정식 가수로 뛰어난 무대 매너와 실력을 자랑하며 각종 불교 행사서 음성포교로 봉사하고 있다. 특히 자관 스님은 음악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 후원하고 활동을 위한 무대를 개최해 격려하고 있다.

창단 기념 콘서트는 주지 자관 스님의 축사, 이진복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가수들의 흥겨운 음악 무대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민을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자관 스님은 "앞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맑히는 불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이주민 포교에 적극적 관심을"

Interview

마하이주민협의회 신임 상임대표 호산 스님



"그동안 마주협 공동대표로서 후원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이주민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스님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임 상임대표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무엇을 하겠다고 공표하기보다는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불교계 대표 이주민 지원 NGO단체인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에 선임된 호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 사진)은 3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마주협은 2월 25일 정기총회서 호산 스님을 상임대표로, 사회부장 덕조 스님(당연직), 마주협 前상임대표 정호 스님, 진오 스님, 도제 스님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마주협에 속한 정회원 단체는 17곳으로 이주노동자 · 다문화가정 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노동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까지 이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소속 준회원 단체 및 연계 이주민법당은 14곳이다. 호산 스님은 불교계 이주민지원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전국 지역 활동을 답사한다는 계획이다.

2월 25일 정기총회서 선출
앞서 공동대표로 활동해와
회원단체 활동 답사하며
애로사항 수렴 · 개선 목표

"이주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 불교국가 출신입니다. 한국에 온 해당 국가 출신 스님들이 이주노동자들과 결혼 등으로 국내에 안착한 이주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현장을 답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산 스님은 4월 중 마주협과 왕래하는 불교국가 출신 스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을 만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신도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스님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향후 스님은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포교 △지역행사 공모사업 △후원 확대 △준회원 단체 및 연계 법당 정회원으로 전환 등을 중심으로 마주협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가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공동대표 스님들과 연고가 있는 지역마다 행사들을 기획해 공동행사인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이주민지원단체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마주협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쟁 · 비극에 맞선 진정한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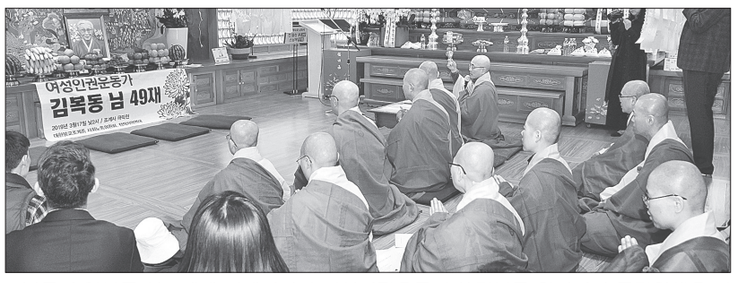
사노위, 故김복동 할머니 49재

"당신은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의 고통을 떨치고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한 진정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큰 보살이었습니다. 부디 아픔과 슬픔, 분노는 놓고 극락세계에서 왕생하길 바랍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정의기억연대(대표 윤미향)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님 49재'를 3월 17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서 봉행했다. 이날 사노위 소속 스님 11명은 이 같이 밝히며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과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故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독실한 불자로 알려졌다. 사노위는 수년간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하며 할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1월 말 사노위 스님들의 집전 하에 고인의 입관식이 치러진 것을 계기로 이날 49재 역시 사노위가 하게 됐다.

49재는 △고인 약력 소개 △추모사 △구호 제창 △염불기도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노위 스님들이 봉독하는 염불소리와 함께 시민들은 영전 앞에 삼배를 올리며 고인을 기렸다.



스님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故김복동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염불기도를 하는 모습.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앞장선 용감한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와 이별한다"며 "고인과 사바세계에서 인연은 다하지만 김복동 할머니라는 별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고인에게 "한반도가 서로 화합하고 한 발씩 양보를 통해 남북통일이 되고, 전쟁 없는 나라에 살면서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빛나는 별처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권미경 연대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과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도 추모에 동참했다. 이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문제해결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14살 소녀 하나 지키지 못한 나라, (일본의)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나라에 대한 원망은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고인과 약속했다.

故김복동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고인이 남긴 500만원을 사노위 측에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국내외 인재불사 후원

은해사, 선화여고 등에 9000만원 전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선화여고 이사장)이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청소년 장학금 8,000만원과 지구촌공생회 지원금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명문 선화여고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돈관 스님의 원력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지원 기자

관응 스님 15주기 다례

직지사 중암, 3월 15일 영산대보전서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15일 관응당 지안 대종사 원적 15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과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 前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관응문도 상좌 덕해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진광 스님,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한불련, 2019년 포교사 품수 및 연수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석인경)는 3월 17일 천안 천불사에서 2019년 포교사 품수식 및 연수를 개최했다. 한불련은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대종사를 증명으로 품수식을 진행, 10명의 새내기 포교사를 배출했다. 또한 100여 명의 포교사가 동참한 오후 연수에는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